

## 제53회 베니스비엔날레 한국관 오픈

양혜규, 개인전 <음결>을 통해 신작 선보여

제53회 베니스비엔날레의 한국관 전사가 6월 4일 개막한다. 한국과 커미셔너를 맡은 뉴욕 뉴뮤지엄(New Museum of Contemporary Art)의 주은지 큐레이터는 양혜규를 한국관 단독 작가로 선정했으며, 작가는 개인전 <음결>을 통해 신작 3점을 선보인다. 비디오 <생과 반복-이름 없는 이웃들과의 사건들>은 작가가 거주했던 서울 아현동과 비수가에 인접이 드문 비엔날레 한국관 주변을 촬영한 영상을 연결하며 간과된 부지역을 재조명한다. <살림(사진)>은 작가의 배를 탄 집 부엌을 실물크기로 재현한 대형 조각이다. 작가에게 부엌이란 피사화-경제적인 공간이자 삶의 활동을 준비하는 곳으로, 이 작업을 통해 부엌과 타인, 외부공간을 연결한다. 플라넵드 설

치작 <일본의 다지기 수운 배일-복소리와 비일>은 자연광과 인공기미광이 그림자와 움직임, 소리로 재구성되는 작업이다. 플라넵드가 재공하는 공간은 사적인 영역인 통사의 차이와 타자를 구분하는 영역이다. 작가의 작업에서 <전력>은 오르케스트라 관악기를 이어주는 연결고리로 작용했는데, 이란에도 선명기와 향분시기 등을 이용하여 공간에 대한 관악기의 공간각각적인 반응을 이끌어낸다. 또한 양혜규는 이번 비엔날레의 총감독인 다니엘 번비움이 기획한 본전사에도 참여하여 7점의 라

경간이도  
2009. 6. 00  
국제갤러리(주)



이트 조각으로 구성된 설치를 보여준다.

한편 제53회 베니스비엔날레 한국관 공의 후원자인 한진해운(대표이사 김영민)은 양혜규의 <음결전>을 지원한다. 한진해운은 국가 홍보와 사회 공헌 취지 하에 활발한 예술나 활동을 펼치 왔다. 이번 베니스비엔날레는 6월 7일부터 11월 22일까지 일한다.